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1년도 표어 ☉

다음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 마28:18-20)

☉ 행동지침 ☉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수요 강단 - 룯기 ☉

##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 (룯기 2:17-23)

## Our Savior, Jesus Christ

### (Ruth 2:17-23)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 받은 자로만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 받은 백성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또한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우리의 이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만약 이 땅의 크리스천 모두가 코람 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면 교회가 세상의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되었겠지만 현실은 참담하게도 부끄러운 평판을 듣기에 급급합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종들에게까지 축복의 언어를 쏟아내는 감동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언어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축복하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언어의 삶을 사셨습니까? 다른 이를 배려하며 사셨습니까? 맡은바 책임을 다 하되 명분과 원칙에 입각해서 사명을 다하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집요하고 치열하게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박노철 목사

We do not live as God' people only because we happen to believe in Jesus Christ, and were saved by His calling. But those who are saved must live their lives as salt and light of the world and glorify God through their good works. If all Christians on the earth lived their live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Coram Deo, they would be the objects of respect and confidence in the world. Unfortunately they are, instead, reputed to be very shameful.

Boaz was a very emotional man who spoke the language of blessing to his servants. How has your life been? What language have you spoken this past week?

Have you been living a life that speaks blessing and healing to others, that changes people? Have you been living a life that thinks about others? Although you may have carried out your duty faithfully, sticking to your Christian principles, have you been successful in accomplishing your mission? We must ask ourselves these difficult and challenging questions.

### 1.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보아스

‘기업을 무를 자’ (20절)는 영어로 ‘kinsman redeemer’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속자. 또는 구원자의 뜻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룯에게 있어서 구원자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고, 혈통을 이어갈 수 있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했던 보아스의 이름은 항상 은혜라는 단어와 함께 나옵니다.

보아스가 룯의 가족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보아스가 룯에게 있어서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친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가까운 친족임을 히브리어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히 2:11). 예수님과 우리들이 한 근원, 즉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났다고 성경은 증거 합니다. 또한 보아스가 나오미와 룯을 구속할 수 있는, 그 값을 치룰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 2. 구원자를 통한 축복

보아스를 통해 룯의 가족이 많은 축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 역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축복을 받고 또 누리고 있습니다.

Redeemer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참으로 어둡고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은밀한 고통을 아시고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며 치유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립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주님의 축복을 ‘내 잔이 넘치는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할 때 주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은혜 가운데 살며 그분의 보호하심의 축복과 위로하심의 축복과 교제하심의 축복을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1. Boaz, a kinsman—redeemer for Jesus Christ

“kinsman redeemer” (v. 20). In English, this means a savior or redeemer. It was Boaz who was a redeemer for Naomi and Ruth. This meant that he gave them food and allowed her to continue the bloodline. Boaz, who always brought increase to the Israelites, appeared with the word, ‘grace,’ in his name.

Just as Boaz saved Ruth's family, Jesus Christ came into this world as our Savior. The reason why Boaz was able to be a kinsman—redeemer was that he was their relative. Likewise, the writer of Hebrews explained that we were close relatives,

“Both the one who makes men holy and those who are made holy are of the same family. So Jesus is not ashamed to call them brothers” (Hebrews 2:11). Jesus Christ shares in the same family with us all. That is to say, the Bible proves that we were bom from God our Father. Just as Boaz was able to redeem Naomi and Ruth and to pay through his position, Jesus has the power to deliver us from evil.

### 2. Blessings through a Savior

Just as Ruth's family enjoyed lots of blessings, we can also receive and enjoy blessings through Jesus Christ. Jesus Christ is a redeemer who always protects us.

All of us who live a life full of darkness, unrest, and dread must entrust the Lord with our anxiety. We are able to live in safety because we are protected by a good Shepherd, Jesus Christ. He knows our secret pain that nobody knows, and touches us in our pain of illness. He heals us, and consoles us in order to live with a healthy spirit. Moreover, the Lord is happy for us to keep company with Him.

Lastly, we enjoy the blessing of living a life of fullness through our Lord. King David confessed this kind of blessing, when he said, ‘my cup overflows!’”

### My beloved Christians!

When we lie down before the Lord's throne and sincerely ask for mercy, He gives us endless grace without cost. By living in the midst of God's limitless grace, by receiving His blessing, protection, and comfort, and by sharing these blessings with one another, I sincerely pray that you and I will fully enjoy His blessing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교육1국 겨울성경학교 · 청년2부, 에바다부 수련회

2011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가 은혜 중에 계속되고 있다. 금주에는 교육1국(유아, 유치, 유년, 초등부)의 어린 학생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이는 겨울성경학교와 청년2부, 에바다부의 겨울수련회가 열린다.

유아부는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강사: 김은숙 전도사), 유치부는 "우리가 다음 세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강사: 박진아 목사), 유년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강사: 김안성 목사), 초등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요."(강사: 서명철 목사)를 주제로 20일(주일)~22일(화) 교

회에서 열린다.

청년2부 겨울수련회는 25일(금), 26일(토) 양일간 "새로운 기둥으로 거듭나자!"를 주제로 아가페 타운에서 열리며 강사로 박노철 목사와 황 광 목사가 선다.

에바다부 겨울수련회는 26일(토)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을 주제로 서울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임규현 목사가 선다.

2011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권사회 수련회

2월 23일(수) 오후 1시 - 웨스트민스터 홀

겨울의 긴 움츠림을 깨고 말씀과 기도로 물을 올려 서울교회 1, 2 권사회가 연합하여 "복있는 사람"이란 주제로 수련회가 열린다. 박노철 목사가 강사로 서며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서울교회와 각 심령을 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말씀으로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서울교회 기도의 어머니, 권사님들께서는 수련회에 모두 참여하시어 국가와 민족, 서울교회와 가정, 개인 신앙의 부흥을 위해 힘써 동참 하시기를 기도한다.

## 다락방장 · 부다락방장 교육-박노철목사인도

3월 2일 수요일, 2부 예배 후/ 본당

우리 교회는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두 그룹인 대그룹과 소그룹의 활성화를 위해서 박노철 목사의 인도로 3월 2일부터 매주 수요일, 2부 예배 후(12:10~13:10) 본당에서

교구일꾼 수련회를 시작한다. 모든 교구일꾼들, 특별히 다락방장과 부다락방장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란다.

## 제43회 국가조찬기도회 헌신예배/세계평화음악회

외국귀빈 환영만찬 : 3월 2일(수) 오후 5시 30분, 만나 홀  
국가조찬 헌신예배 및 세계평화음악회 : 오후 7시 - 8시 30분, 본당

나라와 국민화합, 경제번영 그리고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제43회 국가조찬기도회 헌신예배 및 세계평화음악회가 서울교회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오후 5시 30분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오후 7시에는 국가조찬 헌신예배(설

교: 박노철 목사)와 세계평화음악회로 마치게 된다. 세계선교와 복음에 앞장서는 우리교회에서 귀한 주님의 사역을 위한 세계평화음악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안민 교수 초청 특별금요기도회

3월 4일(금) 오후 8시 20분 / 본당

가난과 역경을 이기고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고 장로로, 찬양 사역자로 그리고 고신대 부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안민 교수 초청 특별금요기

도회가 3월 4일(금) 오후 8시 20분 본당 2층에서 있게 된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바란다.

## 전도학교 39기 · 구약의 파노라마 개강

서울교회 전도학교는 본교회 소속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총회에서 개발한 전도양육훈련코스, 지금까지 1,000명 이상의 서울교회 성도들이 본 과정을 통하여, 전도의 비전과 사명감으로 무장하여 왔다. 1시간의 교과공부에 이어 30분의 전도자 간증 및 현장보고 이후 노방전도 실습과 관계전도를 통하여 전도의 이론과 실재를 몸매 익히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움받게 된다.

한편, 전도훈련의 기초과정으로 구약의 파노라마를 개설한다 (가을에는 신약의 파노라마). '성경의 파노라마'는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성경개관프로그램으로, 산 정상에서 전체 풍경을 조망하듯이, 다소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는 구약의 각 사건의 역사적 전개와 이유, 중요한 인물의 활동 등을 지리적 · 연대기적으로 꿰며 성경의 맥을 잡음으로써, 구약성경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효과적이고 열매맺는 복음의 증인으로 양육받게 된다.

- 개강 : 3월 13일(주일) 오후 2시 904호
- 기간 : 3월 13일(주일) - 5월 29일(주일) 12주간

- 개강 : 3월 11일(금요일) 오전 11시 - 12시 501호
- 기간 : 3월 11일 - 5월 13일 10주간
- 강사 : 장석남 목사

## 2월 성경통독 시상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필사> 13교구 박성희3집사  
<3독> 14교구 이창희 집사  
<1독> 1교구 백명자 집사 윤동수 집사 5교구 김혜연 집사 9교구 이남성 집사 장낙희 권사 12교구 장택집사 13교구 문금희 집사

## 2월 학습 · 세례식

학습 · 세례식을 위한 문답이 오늘 오후 3시 30분, 2월 22일(화) 오후 7시 각 602호에서 있다. 학습 · 세례식은 3월 9일 수요일 1·2부 예배시에 거행한다.

## 제 1,2 스테반회 수련회

3월 1일(화) 아가페 타운

제 1,2 스테반회(회장: 김진환, 오치열 집사) 연합수련회가 3월 1일(화) 아가페타운에서 열린다. 우리교회 박노철 목사가 강사로 서며 오전 7시 교회에서 출발한다. 부부동반으로 스테반 회원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란다. 가수 김세환 집사의 특별찬양도 있다.

## 공군사관학교 제 59기 졸업 및 임관감사예배

공군사관학교 제 59기 졸업 및 임관감사예배가 2월 23일(수) 오후 7시에 공군사관학교 성무교회에서 서울교회 후원으로 거행된다. 교회에서 오후 2시에 출발하며 설교는 박노철 목사가 한다. 서울교회 성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열린 프로그램 접수

모든 성도 한 과목 이상 수강토록

3월 6일(주)부터 2011년 상반기 열린 프로그램을 개강한다. 모든 성도들은 한 과목 이상 수강하여 자신의 영적 성장에 힘쓰기 바란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오늘 주보에 간지로 삽입된 열린프로그램 브로슈어를 참고하기 바란다.

신청서 접수는 오늘부터 사무국에서 받고 있다.(등록비: 과목당 10,000원)



만민에게 전도-단기선교 단원모집

# 방글라데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박종민 목사(2011 단기선교지도복사)

서울교회 단기선교(단장: 이강진1 집사)가 2011년 8월 1일(월)부터 10일(수)까지 10일간 “방글라데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을!”이란 주제로 열리게 됩니다.

방글라데시는 그동안 조남혜 선교사의 어린이 중심의 선교와 박진영, 김미성 선교사의 의료선교가 진행되어 왔던 곳이며, 특히 올해는 김치세미나도 방글라데시를 대상으로 열리기에 어느 해보다 의미있는 선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단기선교는 주로 어린이 사역과 의료, 이미용, 지역섬김 등의 사역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보다 구체적인 계획은 현지 선교사님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예상되는 경비는 일인당 항공료, 숙박비, 선교 활동비용을 포함하여 150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전액 본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단기선교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3월 6일(주)까지 사무국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단기선교 단원은 세계 선교대학을 필히 수료해야 하며 미수료자는 3월 7일(월)부터 시작되는 세계선교대학을 수료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제: 방글라데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간: 8월 1일(월) - 10일(수)



2008년 방글라데시 다카장로교회에서의 세례식

천국시민 양성

# 3자문화 세대 젊은이를 위하여

윤상철 성도(11교구)



제 삶은 아주 어렸을 적부터 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해와 복원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1986년도에 태어나고, 아버지께서 타국으로 발령되면서, 7살이 되던 해에 저는 조국을 떠나 싱가포르에서 외국인의 신분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나이 어린 저에게, 새로운 환경이란 흥분과 모험적인 요소로 다가오지 못하였고, 대신 비탄, 외로움, 그리고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해석되었습니다. 약 2년 반 후, 또 다른 새로운 곳인 인도네시아로 말레이시아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사 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대한민국에서 자란 한국인들은 자신을 한국인으로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자란 한국인들은 자신을 미국인, 혹은 Korean-American (\*한인교포, 곧 한국-미국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인생의 절반을 말레이시아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저와 같은 생김새를 하고 있지만 정서적 교감은 할 수 없는 외국인이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저는 하나님께 왜 제 인생을 이렇게 설계하셨는지 왜 내게는 자신있게 부를 조국이 없는지 여쭙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래와 같은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답하셨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스타디움을 가득 메웠고, 그들은 자기들만의 언어로, 하지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바벨탑에 대한 말

씀과는 전혀 반대인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각자 자기들만의 혀로 찬양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기적과 같이 하나가 되어 울려지고 있던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러시아인들을 위해 기도하듯이, 러시아인들이 중국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국인들은 세네갈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세네갈인들은 북한을 위해 기도하여, 서로 타인과 타국을 위해 기도를 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통틀어 “3자문화 세대 (third-cultured generation)”라고 불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렸을 적부터 너무 많은 문화를 짧은 시간에 경험하면서 자아에 대한 혼돈이 오게 됩니다. 요즘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 이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Austin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에서 배울 신학을 준비하며, 앞으로 얻을 가르침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부풀어 오릅니다. 이러한 때에 서울교회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어머니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송구스럽고 감사합니다.

3자문화 세대의 젊은이들을 일깨우고 이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각기 다른 나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 처음과 같은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문화 민족입니까?  
당신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습니다.”

세례를 준비하며

# 이제 새사람으로 태어납니다.

박기태 (15교구)



저는 20년 전 이 세상에 태어난 박기태 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가슴이 설렙니다. 제가 이번에 정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를 받기 때문입니다. 약 5년 전 아버님께서 이끄셔서 서울교회에 등록하고 이종윤 목사님과 함께 멋진 사진도 찍었지만 열심히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그 후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친목 위주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1년 반 전 돌아와 다시 서울교회에 나와 항상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또 집에서는 하루를 마감하며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떠나지 않는 의문은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 된 건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상의하고 세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8주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좀 망설여졌지만 용기를 가지고 609호 세례준비반으로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권사님과 집사님께서 친절하게 인도하여 주셨고, 무엇보다도 매주 주시는 장석남 목사님의 말씀이 저를 깨우치게 했습니다. 세례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이제까지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정말 중요한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곧 새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성찬식에서 어색하게 앉아있지 않고 참여하여 예수님과 하나될 수 있으니 정말 좋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저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남을 느낍니다. 친구들을 구별하는 안목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니, 더욱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또한 그 손길이 되어 주신 부모님과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국시민양성

# 꼬꼬마 가베 학교

김은숙 전도사(유아부 지도)

'놀이교구'를 지칭하는 독일어 '슈필 가베(Spielgabe)'란 말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놀이 선물'이란 뜻입니다. 아기들이 지니고 있는 창조적인 감성을 건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즉 마음에 있는 것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 프리벨이 고안하고 제작, 보급한 것이 '가베(Gabe)'입니다. 프리벨은 '가베(Gabe)'를 통해서 어린이의 능력



을 계속 끌어내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말하며, 갓 태어난 아기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가베(Gabe) 놀이를 통해 경험하는 <서울교회 꼬꼬마 가베 학교>는 엄마와 아기의 꿈이 자라는 행복한 놀이터입니다.

그동안 마리아학교를 통해 진행해 왔던 가베 교육과정을 정확하게 전

달하기 위해 이번 봄 학기부터 <서울교회 꼬꼬마 가베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유아 가베 놀이에 관심 있는 성도님과 유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웃에게 소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서울교회 꼬꼬마 가베학교>가 유아 신앙교육의 놀이터로 좋은 소문이 나는 그 날을 꿈꾸며, 다음 세대를 위해 정원을 가꾸는 마음으로, 최선의 다리 놓기를 힘차게 시작합니다.

##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테너 양재혁선생의 독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호주로 유학하여 시드니 콘서바토리 음악원의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음악대학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미국 메트리폴리탄 콩쿨에 입상하였으며 워싱턴을 중심으로 독창자, 지휘자로 왕성한 활동을 하다 귀국하였다. 오늘은 "주기도(A.H.Malotte)" 등 세곡을 양경실 집사(임마누엘찬양대 피아니스트)의 반주로 하나님께 드린다.

## 동정

- 승진 : 14교구 한광마 집사 하이닉스 전무이사 승진
- 학위수여 : 1교구 정철웅 집사(오션해집사 부군) 2월25일(금), 고려대학교 의학박사
- 득녀 : 문정훈 목사 정민숙 사모 가정
- 주간식당봉사 : 비울선교회(2.20) 엘리야선교회(2.27)
- 금주의 식사제공 : 김영호 집사 박성금 권사 가정 (자녀결혼 감사하며)

겨울 수련회 초대이글

#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

안인호 집사(에바다부 부장)

2월 26일 토요일 청각장애인 부서인 에바다부가 서울교회에서 겨울수련회를 갖습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일꾼은 누구이며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사나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처음 접했다든지,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뜨거움이 있었다든지, 길에서 우연히 전도하시는 분을 만났다든지, 옆집에 사는 분의 인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든지 하는 간

증은 건청인들 사이에서는 드물지 않지만 청각장애인들에게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청각장애인이지만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교회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기를 원하는 에바다부 부원들이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를 앙망하며 수련회를 갖습니다.

2월 26일 오전 10시 서울교회로 오십시오! 청각장애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청각장애인들이 '성숙한 하나님 일꾼'되기를 소원하며 수련회로 모입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새로운 기둥으로 거듭나는 청년2부!

최진경 (청년2부)



불현듯 '행복이란 무엇일까?' 궁금해져, 포털사이트에 <행복>이란 단어를 검색해 본적이 있습니다. '행'자를 입력하는데 <GOD>란 단어가 나타났습니다. '키보드가 한글이 아닌 영문으로 설정되어있던 탓이었습니다.' 다소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에피소드를 겪으며 모든 행(幸)은 '하나님께서로부터'임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청년2부(82~86년생) 수련회가 <주제: 새로운 기둥으로 거듭나자!, 부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는 2월25일~26일 아가페타운(경기도 청평)에서 진행됩니다. 새는 하늘을 날 때, 물고기는 물속을 헤엄칠 때,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교회 청년2부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이 행복을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에바다부의 겨울수련회를 통해 말씀인에 기쁨과 열매가 가득하도록
2. 2월 23일(수)에 있는 공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 감사예배가 비전 2020의 귀한 통로로 쓰임 받도록
3. 3월 2일(수)부터 시작되는 다락방장/부다락방장 훈련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각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